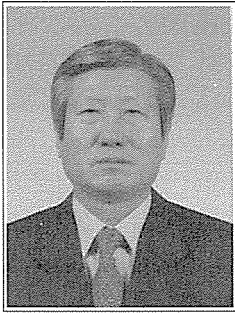


2005.12.15~12.16/프랑스 파리

한·불 양국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 기대

방 국 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존 경하는 베르나 로슈
(Bernard Roche) 프랑
스원자력산업회의 회장
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불 양국 내빈 여러분!

오늘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프랑
스원자력산업회의가 공동으로 주관
하는 제2회 한·불 원자력산업 세
미나에 한국 원자력산업계를 대표
하여 개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본 세미나에 많은 프랑스 측 전문가
들께서 참석하셔서 양국 공동 관심
사와 현안 문제에 대한 훌륭한 논문

발표와 열띤 토론을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세미나가 매년 한국
과 프랑스에서 교대로 개최되어
한·불 양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
하여 정보 교류와 상호 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친선을 다지며 상호 이해
의 폭을 더욱 넓혀나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불 원자력 관계자 여러분!

오늘날 세계 각국은 고유가의 지
속과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라 에
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청정 에너지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대의 과
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원자력은 앞서 언
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
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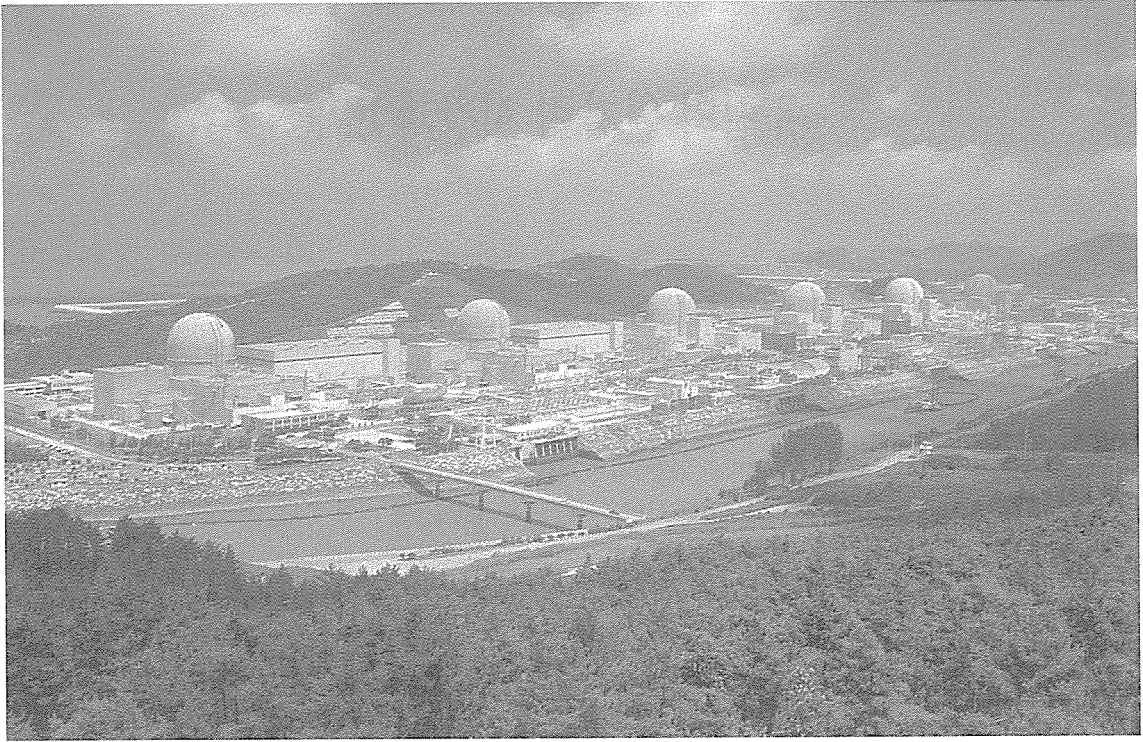
한국의 원자력 현황

한국은 1978년 4월 고리 1호기가
준공되어 원자력 시대의 막을 연 이
래 지난 27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거듭하여 현재는 국내 발전량의 약
40%를 공급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
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1,000MW 용량의
울진 원전 6호기가 상업 운전을 개
시함에 따라 총 20기, 시설 용량
1,772만kW의 원전을 운영하게 되
어, 규모면에서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으로서 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신고리 1, 2호기와 신
월성 1, 2호기의 총 4기의 신규 원
전 건설의 진행으로 2012년까지 총
4,000MW의 용량이 추가됨에 따
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물론, 국
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외화 절감과
온실 가스 감축 효과에도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산업화



영광 1~6호기. 한국은 1978년 4월 고리 1호기가 준공되어 원자력 시대의 막을 연 이래 지난 27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거듭하여 현재는 국내 발전량의 약 40%를 공급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급년 4월에는 1,000MW 용량의 울진 원전 6호기가 상업 운전을 개시함에 따라 총 20기, 시설 용량 1,772만kW의 원전을 운영하게 되어, 규모면에서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으로서 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이용에도 원자력계와 정부가 함께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원자력 기술 이용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1986년부터 여러 차례 추진하였으나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매번 무산되어 왔던 한국 원자력계의 숙원 사업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부지가 선정 방법을 바꾸어 많은 홍보와 노력 끝에 신청

지역 주민 투표에 의해 확정되어 앞으로 원자력사업의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원자력 관계자 여러분!

오늘 한·불 양국 전문가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최되는 이번 한·불 원자력산업 세미나가 아무쪼록 양국 원자력계의 현안 문제와 공통 과제를 해결하고 상호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국보다 원자력 사업을 일

찍 시작한 프랑스의 앞선 경험은 한국에도 매우 유익하고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한·불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의견 교류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의 준비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프랑스 원자력산업회의 및 주한 프랑스 대사관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